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순천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복지담당

담당자 박정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교수 박옥임\*\*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김진희

Dept. of Women and Family, Suncheon City Hall.

Clerk : Park, Jung-Sook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unchon National Univ.

Professor : Park, Ok-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 Kim, Jin-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families in terms of conflict,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elf-esteem,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7 immigrant women in Suncheon. Trained researchers interviewed the subject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alpha$ ,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Duncan's test, Pearson's  $r$ ,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tatistical package of SPSS is used to perform these analys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amily conflict scores of the immigrant women were lower than the median. The average score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median. The family conflict of the immigrant wo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of age.

---

▲주요어(Key Words) :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이주여성(immigrant women), 가족갈등(family conflic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 주 저 자 : 박정숙 (E-mail : jk-5904@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옥임 (E-mail : parkok@sunchon.ac.kr)

## I. 서 론

2005년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4만 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하여 농어촌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건수는 2004년에 비해 21.8%가 증가하였고, 농촌지역에서도 8.5%가 증가하였다(서울신문, 2006; 한겨레, 2006a; 한국경제, 2006).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남녀성비의 불균형, 조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에 따라 초혼 및 재혼남자들의 국내 결혼임지가 좁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양순미, 2006a, 2006b).

국제결혼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농촌 총각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알선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0년대부터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업체들은 제3세계 여성을 국내로 들여와 농촌 노총각들에게 결혼을 주선했다. 제3세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낙후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다. 다른 국제결혼의 양상은 1990년대에 이르러 국제결혼은 사업의 한 상품이 되어 이윤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성들을 장미 빛 꿈을 꾸게 하며 성사되었다. 현 농촌의 국제결혼처럼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를 위해 살림을 살아 줄 여자를 찾거나 전통적 유형의 부계혈통의 명맥 잇기를 목적으로 한 한국사회의 주변화된 남성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신경의, 2005).

국제결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결혼이라 하면 기성세대에게 선뜻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매스컴을 통한 관련 보도 자료들이 주로 국제결혼의 부작용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라든가, 혼혈아 문제 등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여성을 배우자로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것을 곱게만 보지 않는 이유에서이기도 하다(김민정, 2006). 국제결혼에 대한 대중매체의 시선도 단순하며 양극화되어 결혼과 가족의 신성함을 이용하여 위장결혼문제와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문제 등의 시사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국제결혼을 한 부부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족의 문제점을 보는 부정적인 관점임을 알 수 있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와 가정폭력

및 학대,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노동이나 관광의 목적이 아닌 한국 남성과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여성으로 이들은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 목적 이주자 여성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해서 돈 벌려고 한국에 들어온 여성이다. 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살 목적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단순한 거주자로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민으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요 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이들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접근과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족갈등 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가족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순천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개발자료로 활용 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생활만족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

국제결혼이란 국어사전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의미

하나 사회학 용어나 법률용어로서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순명쾌한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이중문화 가정이라 부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혼혈인, 즉 이중문화 자녀라고 부른다. 이질적인 한 문화와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출발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가 동일 국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상이한 인종, 문화, 언어, 국가라는 특수상황과 여건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들의 결혼 동기는 소수화, 특수화되어 국내인 끼리의 결혼동기와 똑같이 보편화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 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는 한국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할 때는 남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지만, 여자가 속하는 국가에 귀화할 수는 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여자는 한국국적을 잃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가 속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남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남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통계청(2006) 자료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국제결혼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 대해 국적별 혼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태국 국적의 여성들의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베트남 국적여성의 혼인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와 몽골의 여성들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이들이 순종적이며, 외모와 부자유한 의사소통으로 이동상 불편함 때문에 국내 농촌총각과 재혼을 원하는 고령층의 남성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의, 200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05년 현재 총 66,912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49,755명(74.4%),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17,157명(25.6%)이다.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도시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79.7%이고 농촌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20.3%임을 적용해보았을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4년 농촌지역 결혼건수 6,629건 중에서 국제결혼 건수가 1,814건(27.4%)에 달한다는 통계청 발표에 의해 재확인되었으며,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연 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 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 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 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 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자료 :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6. 3

<표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지 분포

시도명	전 체		시도명	전 체	
	인 원	%		인 원	%
전 국	66,912	100	전 국	66,912	100
서울특별시	16,454	24.6	경 기 도	16,681	24.9
부산광역시	3,753	5.6	강 원 도	2,142	3.2
대구광역시	1,857	2.8	충 청 북 도	2,176	3.3
인천광역시	4,114	6.1	충 청 남 도	3,047	4.6
대전광역시	1,426	2.1	전 라 북 도	2,955	4.4
광주광역시	1,301	1.9	전 라 남 도	3,250	4.9
울산광역시	996	1.5	경 상 북 도	2,892	4.3
			경 상 남 도	3,288	4.9
			제 주 도	580	0.9

주: 도시는 동지역, 농촌은 읍면지역임/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계산

&lt;표 3&gt;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거주현황

(2005. 2. 28)

지 역	명	%	지 역	명	%
목 포	44	2.1	장 흥	100	4.7
여 수	63	3.4	강 진	68	3.2
순 천	161	7.7	해 남	105	5.0
나 주	198	9.4	영 암	114	5.4
광 양	99	4.6	무 안	129	6.1
담 양	95	4.5	함 평	74	3.5
곡 성	83	4.0	영 광	55	2.6
구 례	78	3.7	장 성	60	2.8
고 흥	109	5.2	완 도	93	4.4
보 성	63	3.1	진 도	41	2.0
화 순	217	10.2	신 안	50	2.4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2,099명(100%)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55.6%가 거주하고 나머지 44.4%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설동훈, 2005).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거주현황은 <표 3>과 같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 2005). 전남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총 숫자로 2005년 2월 현재, 2,099명이다. 나주,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영암 등지가 높은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나라 여성들과 농촌총각과의 만남이 주선된 경우이다(신경의, 2005). 전라남도 여성정책과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은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161명으로 나타났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과의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를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특히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로서 아내로서 대하기보다는 지시적이고 한국 여자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점에 대해 불만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외국인과 결혼했으므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부부간의 갈등과 좌절은 더해 간다.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맥락문화”(유명기, 1997)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과 태도, 그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강유진, 1999; 윤형숙, 2004)은 의사소통의 장애, 어려움을 부부갈등의 원인이자 양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기 때문에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는 다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부부폭력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이다. 이들 가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남편자신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아내와 나이차이가 많아 젊은 아내에 대한 위기감, 가출할 수 있다는 의혹 등이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 2004). 즉 폭력과 폭언은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행해진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폭언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58.8%),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17.6%)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광주여성의 전화, 2004). 지난해에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10~14%이었다. 현재 별거하거나 이혼한 이주여성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율이 높는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의 성행위강요는 40%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방법인 폭력이 매우 보편화된 갈등양상으로 자립잡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비추어진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남편과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이주여성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는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2005)의 보고에 따르면 이주여성과 자녀관계를 보면 전체의 64.3%가 자녀와 집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보다 자녀와 더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혼한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와는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70% 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다.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어 언어장애나 말더듬과 같은 언어문제를

호소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 교육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자녀의 원만한 또래관계형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보건복지부, 2005). 그로 인해 자녀들이 현실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TV중독, 컴퓨터중독, 행동장애에 몰입하거나 탐닉하게 되며 자신들의 내적 불안정에서 오는 긴장감을 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 2004). 또한 가족 내 언어소통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자녀의 숙제를 거의 봐주지 못하는 비율도 55%나 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핵가족을 벗어난 친족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의 친족망에 편입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었다.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주여성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보건복지부(2005) 보고서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고부간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학대양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들의 마음을 불들어 매어 두려고 하며, 시부모가 가정경제권을 장악하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남존여비적인 태도를 갖고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 무조건적인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며, 시집식구가 폭언이나 폭력행사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경우 욕을 하거나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한다(윤형숙, 2004). 또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거나 지역사회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집밖에 출입을 통제하며 사랑, 이해, 순종, 칭찬 등 가부장적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를 강요하며 기대에 어긋날 때 칭송은 언제든지 거두어지고 통제의 언어와 행동이 나온다(전라남도, 2006).

2005년도 가구 당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동포 이주여성가가 빈곤상황이 기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최근 전남과 광주 인근 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김오남(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이하

까지 포함한다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이주여성고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는 결혼조건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우수하다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더욱 가족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전라남도, 2006).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둘째, 개인이 결혼생활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였다(정승혜, 1998). 한편, 김명자(1985)는 생활만족도를 '결혼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 정도'라 하였으며, 유영주(1979)는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령은 곧 세대관의 차이를 대변하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싸움은 여자가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일반화되었지만, 신세대들에게는 여자가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령은 결혼생활의 지속기간을 대변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은정(1922)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0세 이하의 연령에서 결혼을 한 경우가 그 이상의 연령에서 결혼을 한 부부에 비해서 결혼생활의 지속력은 훨씬 떨어지게 된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혼전의 임신, 정서적 미성숙은 연령과 결합되어 결혼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조유리, 2000).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정적인 영향변인으로, 의사소통 유형화에 대한 변인의 하나로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교육 수준의 증가는 의사소통 시 합리적인 사고와 폭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여 가족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송성자, 1986; 이정순, 1991). 한남제(1984)는 도시 빈민

층이 중류층보다 생활만족도가 훨씬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대부분 빈민층 남편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므로 소비를 담당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의 증가는 결혼만족에 직업과 소득을 연관시키는 매개변수로서 결혼만족의 증가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것이다(최규련, 1988).

가정의 소득수준은 부부간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김은정(1922), 김화자과 윤종희(1991), 이동원(1988)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강은령(1989)은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거나 가족갈등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Lock(1951)도 역시 결혼생활이 불행한 집단은 행복한 집단보다 경제적 수준이 더 낮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더 많이 지적한다고 보고하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제시하였으며 실제로도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한 결혼의 붕괴의 실상은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득정도와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이 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조유리, 2000).

대가족 형태가 핵가족 형태보다 갈등이 많아서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반면 유은희(1974)는 가족형태는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행복한 집단에서 보다 불행한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조유리, 2000).

결혼기간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와, 결혼초기에는 높았다가 그 후에 점차 감소하고 후기에 다시 높아지는 곡선적 관계를 지닌다는 연구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나 결혼생활말기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고, 가족생활주기가 초기일수록 남편보다 부인이 실제수행보다 태도가 더 근대적이었으며, 근대적인 부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효율성과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화자와 윤종희(1991)는 결혼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자녀는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에 위기를 가하므로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불일치로 특히 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1~2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보다 행복하다고 하였고, 박영옥(1982)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부부간에 갈등이 증가하는 편이며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김은정

(1922)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보다 2명인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의 유무와 결혼의 행복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이숙현(1990)은 서구 가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서구에서는 자녀가 부부생활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혈연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중시되었던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조유리, 2000).

이영실(1989)의 연구에서 부인과 남편의 종교관계를 비교한 결과 상담집단과 비상담집단 모두 부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 이상이 되지만, 남편의 경우 5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편보다 부인들이 종교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부부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잘 견디어 내는 것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 국적, 종교, 학력, 소득수준, 취업여부, 거주 지역,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 3) 가족 갈등

국내의 선행연구들(김갑숙, 1991; 김혜경, 1987; 박선미, 1987; 조유리, 2000; 홍원표, 1993)에 의해 우리나라 실적에 맞는 가족갈등척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가족갈등의 영역을 성격갈등, 성생활 갈등, 자녀문제, 시댁관계, 관심부족, 경제적 갈등으로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가족갈등의 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4) 생활만족도

Olson과 Barner(1982)의 Quality of life, 이선미(2001)의 연구를 참고로 결혼생활만족, 건강만족, 경제상태만족, 자녀와의 관계만족, 여가생활만족, 이웃 및 주변환경 만족, 현재나의 위치와 역할만족, 친·인척 관계만족,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만족 등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 α는 .81이었다.

2. 조사대상

이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총 166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1~31세가 가장 많아 49.6%였고, 31~40세가 30.7%, 41세 이상이 19.7%였다. 국적은 베트남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국적이 26.0%, 중국국적이 23.6%였다. 종교는 무교 37.0과 통일교 33.1%였고, 불교가 15.7%였다. 학력은 고졸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졸이 26.0%, 대졸이상이 21.3%, 국졸이하가 11.8%였다. 소득수준은 100만원미만이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01-150만원이 31.5%, 151~200만원이 18.1%, 201만원 이상이 15.0%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전업주부가 80.3%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는 19.7%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동부가 50.4%로 나타났으며 읍부는 49.6%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없는

경우가 25.2%, 2명 22.8%, 3명이상이 18.9%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는 6년(73개월) 이상이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7-72개월이 24.4%, 12~36개월이 23.6%, 12개월 이하는 16.5%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보면 3세대 가족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39.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총 166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으로 하여 2006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연구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연구보조자로 구성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이중 12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27)

구 분	N	%	구 분	N	%		
연령	21세~30세	63	49.6	국 적	중 국	30	23.6
	31세~40세	39	30.7		일 본	33	26.0
	41세 이상	25	19.7		베트남	42	33.1
기 타					22	17.3	
학력	국졸 이하	14	11.8	종 교	무 교	47	37.0
	중 졸	33	26.0		불 교	20	15.7
	고 졸	52	40.9		기독교	18	14.2
	대졸 이상	27	21.3		통일교	42	33.1
취업여부	무 유	102	80.3	거주지역	읍 부	63	49.6
	유	25	19.7		동 부	64	50.4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45	35.4	자녀수	없음	32	25.2
	101~150만원	40	31.5		1명	42	33.1
	151~200만원	23	18.1		2명	29	22.8
	201만원 이상	19	15.0		3명이상	24	18.9
결혼년수	12개월 이하	21	16.5	동거 가족	부 부	21	16.4
	12~36개월	30	23.6		부부자녀	50	39.0
	37~72개월	31	24.4		3세대	56	44.5
	73개월 이상	45	35.4				

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갈등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 과

##### 1.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5점 만점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하위 영역별로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은 전체 문항별 평균은 2.24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성격갈등이 2.52로 가장 높은 가족갈등의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의 갈등이 2.43, 성생활 갈등이 2.24로 높은 것으로 전체 가족갈등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대관계의 갈등은 2.18, 자녀문제는 2.07, 관심부족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의 영역으로 볼 때 부부중심의 생활영역에서 보다 높

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 생활만족도는 3.41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 1)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의 차이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 영역은 연령, 국적, 자녀수, 결혼년수, 동거가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31~40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일본국적인 집단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집단, 결

<표 5>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성

변 인		전 체
가족갈등영역	성격갈등	2.52(1.11)
	성생활	2.24(1.04)
	자녀문제	2.07(0.94)
	시대관계	2.18(0.91)
	관심부족	2.01(0.96)
	경제적 문제	2.43(1.02)
가족갈등 영역 전체		2.24(0.71)
가족생활만족도		3.41(0.61)

<표 6>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의 차이

구 분	N(SD)	D	F	
연 령	30대 이하	12.39(4.21)	B	5.99**
	31세~40세	15.30(3.65)	A	
	41세 이상	13.47(4.59)	B	
결혼년수	12개월 이하	10.71(3.71)	B	4.33*
	12~36개월	13.16(4.20)	A	
	37~72개월	14.41(4.29)	A	
	73개월 이상	14.31(4.14)	A	
국 적	중 국	13.46(4.47)	AB	3.42*
	일 본	14.33(3.99)	A	
	베트남	11.95(4.16)	B	
	기 타	15.09(4.03)	A	
자녀 수	없 음	11.28(3.72)	B	5.43**
	1명	13.52(3.76)	A	
	2명	15.44(4.71)	A	
	3명 이상	13.91(4.24)	A	
동거가족	부 부	10.92(3.91)	B	3.24*
	부부+자녀	14.66(4.17)	A	
	3세대	13.07(3.97)	AB	
자아 존중감	낮은집단	14.74(4.14)	B	9.01**
	중간집단	12.67(3.85)	B	
	높은집단	9.60(3.80)	A	

\*p<.05, \*\*p<.01



혼지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집단,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 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자녀가 많을수록 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는 김혜경(1986), 김영자(1992), 이미숙(1986), 조유리(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의 증가, 지출의 증가, 생활 혹은 활동의 제한, 배우자의 관심이 자녀로 전환하는 등의 결과를 유발하므로 갈등이 더 높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원인으로 보인다. 결혼지속년수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집단이 높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거가족의 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의 집단이 가장 높은 갈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녀출산으로 인해 가족 내의 역할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더 뛰어나므로, 갈등을 더 적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관련변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수, 동거가족, 자아존중감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3명이상인 집단, 동거가족이 부부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명희(1988), 조

성옥과 신효식(1987), 최외선과 손현숙(1991), 최규련(1993), 조유리(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불안감을 낮추어 주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발해주므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령, 국적, 종교, 학력, 소득수준, 취업여부, 거주지역, 결혼년수, 동거가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전에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 $r=.57$ )에서 높은 정적상관을 시댁관계갈등( $r=-.40$ ), 경제적 문제갈등( $r=-.39$ ), 자녀문제갈등( $r=-.35$ ), 관심부족갈등( $r=-.28$ ), 성생활갈등( $r=-.20$ )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낮을수록, 경제적 문제갈등이 낮을수록, 자녀문제갈등이 낮을수록 관심부족갈등이 낮을수록, 성생활갈등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행되어진 분석에서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DW(Durbin 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75~.08의 범위에서 있어 잔차간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확인한 결과 모두 2.0이하로서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모델의 47%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7>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구 분	N(SD)	D	F
자녀수	없 음	30.37(5.66)	AB
	1명	31.54(5.64)	AB
	2명	28.72(5.52)	B
	3명 이상	32.04(4.67)	A
자아존중감	낮은집단	29.55(5.10)	B
	중간집단	30.85(4.95)	B
	높은집단	38.00(5.95)	A
동거가족	부 부	33.50(7.98)	A
	부부+자녀	30.04(5.51)	B
	3세대	30.77(4.53)	B

\* $p<.05$ , \*\* $p<.01$

&lt;표 8&gt;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B	$\beta$	R <sup>2</sup>	R <sup>2</sup> 증가량	F
자아존중감	1.10	.51***	.31	.31	59.55***
경제적 갈등	-1.22	-.22**	.38	.07	40.74***
자녀수	1.08	.20**	.42	.04	31.96***
시댁갈등	-1.36	-.22**	.45	.03	27.32***
소득수준	.76	.14*	.47	.02	23.52***

\*p&lt;.05, \*\*p&lt;.01, \*\*\*p&lt;.00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8>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beta = .51, P < .001$ )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갈등( $\beta = -.22, p < .01$ ), 시댁관계갈등( $\beta = -.22, p < .01$ ), 자녀수( $\beta = .20, p < .01$ ), 소득수준( $\beta = .14,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의 생활만족도를 4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갈등이 적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변인의 설명력은 31%였다. 자아존중감과 경제적 문제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38%였다. 자아존중감과 경제적 문제갈등, 자녀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4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시댁관계의 갈등을 추가 분석한 경우 설명력의 증가량은 3%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추가 분석한 경우 설명력의 증가량은 2%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갈등,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족갈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127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데, Cronbach'  $\alpha$ ,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2.24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성격갈등이 2.52로 가장 높은 가족갈등의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의 갈등이 2.43, 성생활 갈등이 2.24로 높은 것으로 전체 가족갈등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댁관계의 갈등은 2.18, 자녀문제는 2.07, 관심부족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갈등의 영역으로 볼 때 부부중심의 생활영역에서 보다 높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 가족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영역은 연령, 국적,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동거가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31~40세 집단, 결혼지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집단, 동거가족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가족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자녀수, 동거가족,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시댁관계갈등, 경제적 문제갈등, 자녀문제갈등, 관심부족갈등, 성생활갈등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낮을수록, 경제적 문제갈등이 낮을수록, 자녀문제갈등이 낮을수록, 관심부족갈등이 낮을수록, 성생활갈등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갈등, 시댁관계갈등, 자녀수, 소득수준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의 생활만족도를 4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갈등이 적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은 부부의 성격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족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적 대상에 접근할 때 이주성과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족갈등에서 시댁관계의 갈등이 높게 나타나 시부모를 포함한 시댁의 영향력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부부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과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왜곡된 가족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가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의 차기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제적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동기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주하였으나 실제 국제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85%가 200만원 이하의 월평균소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국제결혼 가족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표집으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질문문항이 많은

부분과 다양한 내용의 질문 등으로 인하여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부족과 면접조사로 인해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소지에 방문할 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접수 일 : 2007년 09월 11일

□ 심사 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8일

#### 【참 고 문 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광주여성의 전화(2004). 광주·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 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193.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설동훈(2003).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한국 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공동심포지엄-한국의 소

- 수자 실태와 전망, 221-238.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의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의(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심선진(2004). **국제결혼과 여성폭력-국제결혼한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국제결혼 이주여성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전라남도(여성정책과).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양선화(2004). **상당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양순미 · 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75-91.
- 양순미(2006a). **국제결혼가족과 우리의 임무**. 여성농업인 신문 (사설칼럼). 2006. 4. 27일자
- 양순미(2006b).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양철호 · 김영자 · 손순용 · 양선화 · 신봉관 ·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 · 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여성가족부(2005). 2005. 9.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 지원발표**.
- 위훤(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 유명기(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이해**. 미래인력개발센터.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4). **국제결혼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충북 외국인 주부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순현(1987).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부부역할 인지와 결혼만족도**.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정영덕(2004).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일장신대 석사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 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84-308.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 통계청(2005). 2005년 통계자료
- 한국가족관계학회(2006). **농촌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한국농촌사회학 공동세미나,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한주연(2002). **한 · 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oth, A. (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Vol 39. pp645-650.
- Bucker, J.C. & T, weir(1976).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Vol 38. pp 279-286.
- Collins, R. (1971). *Cimflct socioly*. N. Y; Academic Press.
- Corser, L. A. (1964). *The function of socail conflict*. Glencoe: Free Press.
- Roach, A. J., Fraizer, L. P.,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 pp. 359-367.